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고 있나요?
이번에 소개할 성지는 시원한 바다가 있는 '부산교구와 마산교구'의 성지들이에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부산에서 순교한 8분의 순교자의 묘소와 한국 순교성인 26위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순교자 성당이 있는 곳

'죽림굴 신앙사적지'- 박해를 피해 온 교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던 곳,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도 은신하며 신자들과 함께 미사 집전)

'명례성지 순교자 기념성당'- 병인박해 때 순교한 신선복 마르코를 기리며 그의 생가터 위에 세워진 성당

시원한 바다가 함께하는 마산교구와 부산교구로 성지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7월 6일 연중 제14주일 <루카 10,1-9>

그때에 1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4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5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8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 백동수 토마스 아퀴나스

못자리 친구들, 신부님은 주일학교 시절
성탄 예술제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대본이 나오고 배역이 정해지면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과 함께

성탄 한 달 전부터 함께 맹연습했었죠.

연습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연습을 챙겨주신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더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모든 교리교사 선생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 리 들 이 야 기 ★

이 도박에 평화를 빕니다



★개운동 성당 6학년 윤지원 가브리엘라

루카복음 10,2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저의 마음에 들어온 문장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예요.
저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았어요. 하느님의 일꾼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오늘 하루 단 한시간 만이라도 예수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게예요. 하루 한시간이 쌓이고 쌓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종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개운동 성당 5학년 이가현 레아

오늘의 복음

7월 13일 연중 제15주일 <루카 10,25-37>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강도에게 맞아 쓰러진 사람을 본 세 사람은 누구 인지 찾아보세요.

퍼즐

가로세로

명	성	체	음	할	통	양	치	기	그
강	령	영	소	성	례	자	학	도	리
박	열	매	영	치	걱	엘	간	청	스
하	해	일	여	려	정	사	리	수	도
늘	피	마	선	행	마	브	원	야	난
음	리	르	택	출	허	구	야	고	보
아	식	타	은	복	선	자	애	로	움
찬	송	사	총	수	중	비	눗	방	울
칭	시	형	합	발	소	락	민	노	비
메	방	초	시	촉	리	농	성	심	인

-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을 먹어라. <루카 10,8>
-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그에게 ○○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루카 10,37>
-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하려고 말하였다. <루카 10,25>
- 사람의 됃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하고 걱정하는구나." <루카 10,41>
-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 "너희는 ○○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루카 11,2>
-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빚.

오늘의 복음

7월 20일 연중 제16주일 <루카 10,38-42>

그때에 38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달의 생활성가



@유튜브 - 갓등중창단

축 제

야~! 여름이다~~

여름은 덥기도 하지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다양한 여름 축제가 있는 달이기도 해요.

우리의 여름 신앙캠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나게 축제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영덕 성당 5학년 방수아 다니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진리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하느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영덕 성당 5학년 방수아 다니엘라

오늘의 복음

7월 27일 연중 제17주일 <루카 11,1-13>

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경 도시

헤브론(Hebron, Ἥβρον)

-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땅 (어원 : '동료' '결합' '친구'라는 뜻)
- 구원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곳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활동 무대 - 창세기 참조)
-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 (헤브론(히브리어), 알할릴(아랍어) 옛 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무역의 중심지.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 찾으세요.





<1주간> : 연중 제14주일

1. 복음 말씀을 읽고 ○○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2. 다음 중 오늘 복음에 나오는 생물들을 찾아보세요.

① 양

② 뱀

③ 전갈

④ 이리

<2주간> : 연중 제15주일

1.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② ()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③ 네 ()을 다하고 네 ()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을 다하여

④ 주 너의 하느님을 ()하고 네 ()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2. 오늘 복음 말씀과 다른 내용의 문장을 찾아보세요.

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②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③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④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 사람처럼 되라고 이르셨다.

못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연중 제16주일

1.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마리아 ② 마르타 ③ 마리아 막달레나 ④ 올리비아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적어보아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 뿐이다.
마리아는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4주간> : 연중 제17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이어지는 기도문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 | · ㉠ 저희도 용서하오니 |
| ② 날마다 저희에게 . | · ㉡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 ③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 | ·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 ④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 | · ㉣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2.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빈 칸의 말씀을 채워 보세요.

누구든지 ()는 받고, ()는 얻고, ()에게는 열릴 것이다.

당첨자

5월 11일 정답자

화 령 최서연 홍세율

5월 18일 정답자

화 령 장인규

5월 25일 정답자

송현동 김수빈 김소리

6월 1일 정답자

개운동 오태수 윤지원

6월 8일 정답자

개운동 이가현 이아람



알림판



◆ 레오 14세 교황님의 문장과 사목 표어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In Illo Uno Unum)

◆ 8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8월 3일 : 송현동 성당
- 8월 17일 : 영 양 성당

(※ 원고는 7월 1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